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신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목적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rimoon.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8



마음공부의 길

문 스님, 속가에서 불법을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엔지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남을 돌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마음공부의 길을 언제까지나 끝없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래서 옛날에 길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써 붙이기를, 하나는 길이 험 돌 사다다리 골짜기로써 험하다고 써 놓고, 한 군데는 아주 대로(大路)로 좋은 길이라고 써 놓고, 또 한 군데는 가다보면 그냥 춤도 추고 술을 마시는 주막도 있고 쉼 자리도 많고 좋은 길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길을 가만히 보면은 공부

쳐서 광대무변한 무쌍한 밤을 들고 내는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고, 여여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 따라서는 꿈에 뭐가 보이든, 낮에 서로 상대가 생기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굴하지 말고, 어떠한 길 보더라도 속지 마시고, '아! 저것도 모를 때 내 모습이 겠지.' 하고 이해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꿈을 잘못 꾸었다 해도, '화해서 모습을 보이는 게지, 저것도 내 모습이겠지.' 이렇게 자꾸 하나로 돌린다면 우주도 바로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지구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땀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모든 기계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축을 빼놓고는 안됩니다. 그 축으로 인해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도리를 배워서

육신은 정신세계의 심부름꾼

내가 공했는데 병이 어디 있고 또 병이 붙을 곳도 없잖아요

노래를 지어 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육신의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일체를 돌로 보지 말고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몸을 볼 때 돌로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했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내가 공했는데 병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공했다면 병이 하나도 붙을 데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깐 병이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으로서 오는 놈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우리 빛속을 좀 보세요. 세 근 모든 거 이 놈들이 전자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태초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놈들이 한데 한마음으로 뭉쳐서 사람으로 하나를 형성시켜 가지고 진화하게 만들고 자꾸 자꾸 마음으로 차원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또 진화되는 거고, 진화가 됐으면 거기서 하나가 돌, 셋이 되고 자꾸 돌아가는 거고, 또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짝 없애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어디 꼭지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돼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없는 감옥이다. 또는 인간의 영화 게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마음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비교한다면 육성같은 데도 어느 동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을 닫아걸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비교해서 참작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걸었다고 못 들어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돌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애당초 생길 때에 개구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뱀의 모습을 쓰고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인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두 있는 거고, 전자에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의 모습들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 모두를 내 생명과 같이 아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것도 살리는 거고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게 하 나도 없어요. 살생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오면 병이나 고친 다 이러지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병은 아니입니다. 병도 나타나고 가난을 면하는 것도 나타나고, 우환이 없어지는 것도 나타나고 그러지마는 인과응보라든가 우연성이 끊어지는 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화창하듯 마음속에 참 사랑의 길이 열려

그 절에 가면 병이나 고친다고 그러겠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화창하듯이 참 사랑의 마음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마음속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회전시켜준다는 게 전체 보배를 찾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병뿐이겠습니까? 세세생생에 영원한 보배를 자기가 지니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 육체도 이끌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자유인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일체를 돌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랫말도 지어 냈어요. '삼세가 돌 아닌 도리' 라는 제목의

년 살 줄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어 태어나고 또 바뀌어 태어나고,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팔로하고 살면 짐승의 모습을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들 다 알려면은 내면의 주인공 자체를 진짜로 믿어야 해요. 자들이자 자기의 주장자이거나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섬섬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주인공에다 놓고, 아픈 것도 병을 돌리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공부시키느라 이리저리' 하고 돌 아니게 살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 자꾸 관하면서 마음을 안정해야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말하면서도 하지 않는 법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법 걸어다니면서도 걷지 않는 법 삼매에 드는 법

모두 해탈을 한다면...

문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해탈을 얻고자 하면 수 없는 고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인연 따라 구도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업과 인연이라 정해진 것이지요?

답 우리가 만약에 정신계를 추구해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반반씩 100%가 돼서 움직여지게 된다면 여긴 상세계가 됩니다. 중세계가 아니라 상세계요. 불국토가 된다 이 소리고. 그런 왜냐하면 다른 혹성에도 또 중세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어도 살 수 있고, 저런 게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상세계의 차원이 된다면

아니라 세계가 다 지구를 집을 삼아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망가진다면 그 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생명들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집을 내가 지켜야. 또 몸뚱이 내 집을 내가 지켜야. 내가 사는 사회를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선법(禪法)에는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따지는데, 무(無)의 세상에 공법의 도리로서 가고 음이 없이 음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 한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것도 방편이죠. 이 탁자 위에 놓여진 컵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이죠.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약해서 못 한다는 게 많고, 나는 모른다는 게 많고, 업이 많다고 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얽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필박질을 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필박질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붙지 않죠. 마음으로 필박질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한 할나라고 합니다. 빛보다 더 빠르죠. 아주, 빛은 오히려 가다가 달이 생기지만 마음의 빛은 보이는 빛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 오존층이라고 하나요? 예전에도 얘기했지요, 만약에 구멍이 난다면 그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물질적인, 즉 말하자면 남극 북극의 얼음이 점차적으로 녹게 돼 있죠. 그러면 불난리 불난리에 계속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걸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을 가만히 앉혀 놓고,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거길 간다 합시다. 가도 몸뚱이는 여기 있는 거지 몸으로 거기 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결단을 내리면 스스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지요. 아주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발산을 하지 않게끔 다 조처를 취해 놓으면 흙집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차츰차츰

들어들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조.

그 대신에 우리 집이 지구라고 한다면, 집이 작으면 식구가 많다면, 얼른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잘 데도 없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왜 배추씨나 무씨를 밭에 뿌려 놓으면 한데 그냥 붙어서 모두 나죠? 그럼 그걸 속아 줘야지 속아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오죠,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속은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단 얘깁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입니다. 속는 일이 생긴다는 건, 속는 일은 생기기 같이 붙어 있는 건, 고추나무도 큰 것이 서로 한데 붙어 있으면 하나는 뽑아 내야 한 놈이 살죠. 그렇죠? 그렇게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붙어 있는 놈들은 다 속아 내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뽑아 내는 일이 점차적으로 생긴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필연적으로 해서 이 중세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논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의심없는 믿음 가지려면...

문 내 삶을 잡고 갈 동아줄을 주셨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으로 놓고 관하려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지 바뀌지 않는 생각이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마음이라 인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고 놓으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믿음으로 놓아도 안되는 것은 믿음의 정도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지,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자체도 놓고 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틀 밖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제일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몰록 일임해서 놔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내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씨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쭉거리게 되고, 삼합이 구성돼서 공존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증명해 보는 대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본분이 없으면 목욕할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없다면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가 무효이니가 삼위일체가 공존한다는 것을 전부 알아야 돼요.

그럼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의 형상과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 앞에 갔을 때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이 이년까지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몰록 놔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나 하면, 이 세상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해 버렸으니 그 공한 자리에 다 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놔버리는 자는 누구고 보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놔버려라' 하는 자도 공이요 '놔버린다' 하는 자도 공이기 때문에 말을 했으면서 말을 한 사이가 없다는 이 소리란 낯을 보이지 말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말한 것은 컴퓨터처럼 오관을 통해서 자기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있어버린 것 같아 버린 거지만... 자기가 아닐까 지 내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아는 게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 실상이 아는 거고,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어라 이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자기 하나하나 해나 하는 과정을 역력히 알고 있을까? 그 아는 놈이 누굴까? 그 아는 놈은 자기의 생명의와 같기도 하고 자동적인 컴퓨터 같기도 하고 자기의 영원한 주인공이요, 주인공이라는 건 이들도 없으면서 바로 그 에너지로 총망해서 컴퓨터처럼 책정이



그림 · 최주현

에 뜻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대로가 좋다고 갈 거고, 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내가 대로를 찾으려고 왔느냐? 험하더라도 내가 갈 길은 꼭 가야만 하지.' 하고 험하지만 바른 길을 택해서 갈테고, 또 그냥 논다나처럼 그런 사람은 '똥, 똥이 싹일줄 넘어가면 다 없어질 텐데 아니 놀고 어떻게 가라.' 그러고선 험한 길을 되돌아서 가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세 길을 나누어져 있는데 수행자가 택한 길은 아주 험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는 해골도 그냥 널비하게 있고, 불쌍하게 죽는 혹성들의 해골도 널비하게 놓여져 있고, 귀신도 많은 그런 길이에요, 아주 소로(小路).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가면서 모조리 집어먹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돌이 아니다 하면 집어먹는 거니까, 돌이면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조리 집어먹고 가다보면은 길은 빨라지고 정말 나를 수도 있는 길, 그냥 떠서 가는 길이 생기지요.

그렇듯이 만약에 지금 우리 앞길에 별의별 것이 다 쌓여있다고 한다면, 혹성이 아니라, 축생, 아수라 차원이 낮은 것들이 죽어서 죽 있으면은 이걸 치우고 길을 가야만 하겠조? 그래서 정말 참 선의 길은 아주 좁고 천야만야하고 좁은 골짜기고, 길이 험해도 가는데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이리저리 구르고 그러는 데가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가는 길이지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 자기가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말 하면도 하지 않는 법,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법,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걷지 않는 법, 이 네 가지를 다 한데 합쳐서 놓는 법이며 바로 이것이 삼매에 드는 법이며, 참선이며, 참 행이며, 도 행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를 깨우

생활이나 일체만법을 운용하고 나가면서, 영구적이고도 영원하면서 윤회에 꼬달리지 않고 여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중용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길이지요, 진리요, 도입니다.

병과 돌이 아닌 이유

문 "스님의 자유인이 되는 길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의문나는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병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 돌이 아니라 말씀이 어렵습니다. 병은 내가 반드시 물리쳐야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죽어야 병과 돌이 아니라고 어느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리송하고 스님의 감로수 같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죽어야 병과 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현재 의식의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바람결처럼 덧없이 가는 거라고 하지만, 바람결같이 가는 것은 물질적인 모습이지 참자기는 일체 만법을 다 이롭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자기 정신계의 시지일 뿐이죠. 심부름꾼 말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니깐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공심으로서 살며 돌로 보지 말고 모두가 공체로 살고 공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런 나무나 돌, 풀 모두가 공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 속에 수천 가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그 생명들도 모두 공성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돌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일체를 돌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랫말도 지어 냈어요. '삼세가 돌 아닌 도리' 라는 제목의